

# 천권책 첫밤을 내딛다



천권책  
첫발을 내딛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한 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과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차례

6 설레임 반, 걱정 반, 우리들의 소풍

20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첫책을 시작하다

32 책을 마무리하며  
당신을 응원합니다



# 설레임 반, 걱정 반 우리들의 소풍

따뜻한 햇살이 빛나던 6월의 어느 날,  
천권의 책을 만들 주인공들이  
처음으로 만나 소풍을 떠났다.





잔디밭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수줍게 자신을 소개하며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다.  
축하의 편지처럼 온, 특별 배도,  
그런데 배가 볼 수 없어서 많이 물어보셨죠,  
말씀하시길 정말~ 정말로 그 날이 바뀌어,  
평소에 배 (프로젝트)를 물어보면~ 많이  
두려워할 수밖에요. 혹시 또 두렵지않?  
말씀하시길, 정말 감사하네,  
스스로 물어본~ 무렵, 두렵지않~ 분명히  
말씀하시길, 정말 감사하네,  
두려움~ 정말로 무렵일 뿐이지~ 걱정~ 정말로~  
아니~ 물론이죠~ 그렇죠, 정말 감사하네  
말씀하시길~ 정말~ 무렵이요, 감사하네!  
말씀하시길~ 정말~ 감사하네! 정말 감사하네,  
말씀하시길, 정말~ 무렵~ 정말 감사하네!

인생 경험이 부족한 내가 과연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남다른 지식에서부터 한 사람의 품에서  
그런 특별한 조금씩 살아있고 변화하는 것 같다.

